

# 芝山 曹好益의 詩文學 世界

黃 渭 周\*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1) 總括的 狀況     |
| 2. 學問淵源과 詩文學觀 | 2) 離別의 悔恨과 客愁 |
| 1) 學問 淵源과 交遊  | 3) 脫俗의 自然閑情   |
| 2) 詩文學觀       | 4) 學問的 沈潛 其他  |
| 3. 詩世界와 그 特徵  | 4. 마무리        |

## 1. 머리말

현존 지산선생집은 詩賦 1권(권1), 편지 2권(권2~3), 祝文 祭文 1권(권4), 箋序記跋 및 雜著 2권(권5~6) 등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저술로는 大學童子問答 1권, 易象說<sup>1)</sup> 3권, 周易釋解 5권<sup>2)</sup>, 家禮考證 7권, 心經質疑考誤<sup>3)</sup> 1권 등이 있다. 기타 문집 부록에 年譜 行狀 神道碑銘 墓碣銘 壬辰事蹟 등 3권이 있는데, 이는 지산이 직접 지은 글이 아니라 동료 문하생 및 후학들이 지산과 관련하여 지었던 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조지산이 저술한 글은 이 처럼 문집 6권과 개별저술 17권 도합 23권 정도이다<sup>4)</sup>. 그러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것이 대부분 예학 경학 성리학 등에 편중되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가례고증(7권), 易象說(3권) 周易釋解(5권) 大學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1) 陶山及門諸賢錄 曹好益 조항에는 易象推說이라고 하였다.
- 2) 이 책은 선조35년(1602. 선생58세) 校正廳堂上으로 임명되었을 때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여 지은 것이다. 芝山先生文集 부록 권1 年譜 58세조항에 “舊傳諺釋 較諸經文 其句讀旨義 猶有異同 遂著是解(周易釋解) 凡五卷”이라 하여 이 책이 그 전의 諺釋을 바로잡은 5권의 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존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3) 이 책은 규장각과 계명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芝山病夫의 서문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도산금문제현록 曹好益 조항의 “所著有心經考異”라고 한 기록이나, 川沙 金宗德 등의 心經講錄刊補 凡例의 “芝山曹公好益 依講錄論解 謂之考誤 其有關發明者 往往附見”이라고 한 기록을 참고하면 芝山이 이 책을 지은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본은 1책 36장의 목판본이다.
- 4) 지산선생문집 부록 권1 연보 선조32년(1599. 선생55세) 조항의 주석에 의하면 이 외에도 易傳辨解 儒釋辨 등의 책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모두 失傳되어 구체적 규모와 내용을 알 수 없다.

童子問答(1권) 太極論 題聖學十圖說 理氣篇 諸書質疑(雜著2권에 수록됨) 등 19권 가량이 모두 이런 것이고, 나머지 4권 중 3권은 편지 제문 등 일상적 실용문이며, 문학작품으로 간주할만한 것은 전체 23권 중 詩賦 1권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지산은 예학과 경학에 몰두한 道學者로 간주해야 마땅하며, 시문학은 그가 추구한 세계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조지산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 처럼 근본적으로 한계가 분명함을 전제하면서, 다만 그 학문과 사상 및 저술 전반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의 일부로서 최소한의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연구가 조선시대 도학자들의 문학활동 양상과 특징을 귀납적으로 해명하는 기초 작업으로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 學問淵源과 詩文學觀

### 1) 學問淵源과 交遊

조지산은 인종원년(1545) 昌原府 芝介里에서 魯齋 曹允愼과 仁同張氏 사이의 4자로 출생하였다. 8세 때 아버지에게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였고<sup>5)</sup>, 10세 때 중형 曹光益을 따라 龜峯 周博에게서 수학하였으며<sup>6)</sup>, 17세 되던 명종16년(1561) 윤5월에 퇴계에게 배움을 청한<sup>7)</sup> 이후 퇴계가 세상을 떠난 선조3년(1570) 26세 때까지 약 10여년간 도산을 왕래하면서 공부하였다<sup>8)</sup>.

그가 처음 수학한 아버지 魯齋 曹允愼은 愼齋 周世鵬과 道義交를 하였다<sup>9)</sup>. 주세붕(연산군1, 1495~명종9, 1554)은 白雲洞書院의 건립 주역이고, 기묘사화 이후 폐지되었던 呂氏鄉約의 부활을 위해 노력한 도학파의 일원인데, 그가 건립한 백운동서원에 “昭修書院이란 사액을 받도록 한 사람이 바로 당시 풍기 군수였던 퇴계 이황(연산군7, 1501~선조3, 1570)이었다. 그가 두번째로 수학한 周博은 바로 이 주세붕의 아들이다<sup>10)</sup>. 원래는 周世鵬의 조카(형님의 아들)였는데, 나중

5) 연보 8세조항에 “始學于大人參贊公”이라 하였고, 그 주석에 “常處一小房 讀書不出戶 家人稱小房兒”라고 하여 이 때부터 이미 小房兒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공부에 몰두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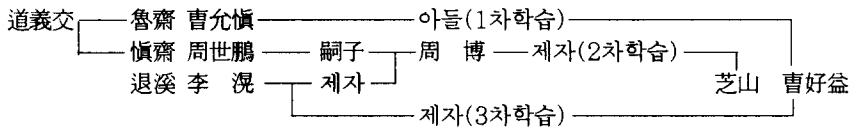
6) 연보 10세 조항에 “從龜峯周校理博學”이라 하였고, 그 주석에 “仲兄 聚遠堂公光益 嘗從學龜峯先生 亦隨而隸業 自後博讀經史 旁通舉業”이라 하였다.

7) 연보 17세 조항에 “閏五月 往拜退溪先生于陶山”이라 하였고, 그 주석에 “先生手書冊面曰 辛酉閏五念六 見退溪先生”이라 하였다.

8) 연보의 19세 21세 23세 조항에 각기 “往拜退溪先生” “進謁陶山” “謁退溪先生于陶山” 등의 기록이 따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陶山을 왕래하면서 공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9) 연보 8세 조항에 “參贊公 號魯齋 以文學行義見重於世 與周愼齋世鵬 林葛川薰 爲道義交”라고 한 기록이 있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에 주세붕의 嗣子로 입양되었다<sup>11)</sup>. 周博은 퇴계 이황에게서 직접 수학한 直傳弟子이면서<sup>12)</sup>, 동시에 조지산에게는 表叔<sup>13)</sup>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조지산의 학문적 연원은 이 처럼 처음부터 퇴계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후 10여년 동안 직접 도산을 왕래하면서 성리학의 핵심 전적을 공부함으로써 마침내 퇴계학파의 중심적 인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런 학문적 연원과 관련하여 조지산이 교유한 선배 동료 후배들 중에는 퇴계 문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7세 때 그를 처음 조정에 천거한 高鋒 奇大升(중종 22. 1527~선조5. 1572), 57세 때 李元翼과 함께 사당 건립을 의논한 鶴峯 金誠一(중종33. 1538~선조26. 1593), 51세 때 그를 安州牧使로 천거한 鄭岷壽(중종33. 1538~선조35. 1602),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면서 아들 鄭樟을 제자로 맡긴 寒岡 鄭述(중종38. 1543~광해12.1620), 48세 때 그의 석방을 건의 실현시킨 西厓 柳成龍(중종37. 1542~선조40. 1607) 등이 모두 퇴계 문인록에 올라 있는 선배 동료 학자들이고, 50대 이후 자주 왕래한 大菴 朴惺(명종4. 1549~선조39. 1606)과 旅軒 張顯光(명종9. 1554~인조15. 1637) 桐溪 鄭蘊(선조2. 1569~인조19. 1641) 등도 모두 그의 知己였던 寒岡 鄭述와 깊은 학문적 교환이 있는 퇴계학파의 후배 학자들이라고 할만한 사람들이다<sup>14)</sup>.

기타 기호 지역의 梧李 李元翼(명종2. 1547~인조12. 1634), 白沙 李恒福(명종11. 1556~광해10. 1618), 藥峯 徐滄(명종13. 1558~인조9. 1631)<sup>15)</sup>과

10) 周世鵬, 武陵雜稿, 附錄, 권1의 世系圖 참고.  
 11) 周世鵬은 처음에 弘文館校理 河沃의 딸인 晉州河氏와 혼인을 하였는데, 5년이 안되어 喪妻를 하여 다시 訓導 安汝居의 딸인 廣州安氏와 혼인하였다. 그러나 두 부인에게서 모두 자식이 없어서 형의 아들인 博으로 후사를 삼았는데(皆無子 以兄子博爲嗣), 이런 사실이 武陵雜稿, 附錄, 권3, 行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2) 陶山及門諸賢錄 권4에 周博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가 周世鵬의 武陵雜稿를 退溪에게 가져와서 就正했던 사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13) 周博이 曹芝山の 表叔이란 사실은 행장에 “十六歲 求見皇極經世書朱子大全於表叔周校理博”이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신도비명 묘갈명 등에 두루 보인다. 表叔이란 보통 外叔 혹은 姑母夫을 가리키는데, 지산의 외가는 仁同張氏 張仲羽의 집안이므로 外叔은 분명히 아닌 듯 하며,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14) 曹芝山の 이런 교류관계는 대부분 芝山先生文集 附錄 권2에 수록된 연보를 통해 확인하였다.  
 15) 徐滄은 영남 인물로 볼 수 있으나, 서울에서 주로 성장하였고 李珣와 宋翼弼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기호학파의 학자로 간주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우도의 忘憂堂 郭再祐(명종7. 1552~광해9. 1617), 경상좌도의 海月 黃汝一(명종11. 1556~?), 僧將 松雲大師(중종39, 1544~광해군2, 1610) 등과의 교유가 확인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의병활동 혹은 자신의 거주지역에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교유한 사람들일 뿐<sup>16)</sup> 학문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지산의 학문과 교유가 퇴계학파를 근간으로 형성 전개되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으며, 도학 문학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도 이런 학문적 연원과 교유에 기인하는 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시문학관<sup>17)</sup>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지산은 전체 저술 23권 중 문학작품으로 간주할만한 것은 詩賦 1권 정도를 남긴데 불과하였다. 이 점을 환기한다면, 그가 근본적으로 문학에 특별히 힘을 경주한 문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자신도 題道川書齋란 시의 주석에서 “선비는 글을 공교롭게 짓고 벼슬에 잘 나아가는 것을 능사로 삼지 않는다”<sup>18)</sup>라고 하여 글을 공교롭게 짓거나 벼슬에 나아가는 것이 선비의 능사가 아님을 분명히 전제하였다.

그리고 贈尹眉叟란 시의 주석에서는 “무묘한 가운데 筆墨으로 스스로 즐기는 것일 따름이니, 어찌 옛 사람들이 이른바 騷家風韻이란 것을 알겠는가?”<sup>19)</sup>라고 하여, 자신에게 있어서 시란 무묘한 가운데 스스로 즐기는 일종의 餘技일 뿐 시인다운 風韻을 아는 전문적 경지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sup>20)</sup>.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조지산의 문학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道를 文보다 우선하는 道本文末論, 시문

16) 白沙 李恒福은 지산이 평안도 江東으로 거처를 옮겨(선조28. 51세) 安州牧使 成川府使를 지내던 당시에 아들 李井男을 제자로 의탁한 적이 있고, 梧李 李元翼은 지산이 영천 陶村에 우거할 때(선조32. 55세 말) 울산지역의 왜적을 토벌하기 위한 의병 모집을 의논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으며, 海月 黃汝一과 藥峯 徐滄은 역시 영천 陶村에 거처할 때 각각 영천 군수(선조36년, 59세)와 경상감사(선조39. 62세)로 부임하여 인사를 온 적이 있고, 忘憂堂 郭再祐는 지산이 63세(선조40. 1607) 때 滄巖亭詩를 지어 부친 것이 확인된다. 이런 사실도 역시 芝山先生文集 附錄 권2에 수록된 연보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17) 지산이 시문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존 지산집 어디에서도 그의 시문학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문집 주석에 단편적으로 기록된 글을 검토함으로써 그의 문학관의 일단을 추정해 볼 수 밖에 없다.

18) 芝山先生集, 卷1, 39쪽, 題道川書齋, “士不以工翰墨善進取爲能事”

19) 芝山先生集, 卷1, 29쪽, 贈尹眉叟二首.  
“此無聊中以筆墨自娛耳 豈知古人所謂騷家風韻者”

20) 조지산은 자신에게 있어서 시문이 대단한 것이 못됨을 망우당 광재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밝힌 바 있다. 芝山先生文集 권2에 수록된 與郭忘憂堂이란 편지의 “老拙 文慙帳下之我 詩愧尋醫之人 累承勸意 不得強辭 僅綴長句一首 以寓賤夫之懷 非敢以爲詩”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이 비록 상대를 염두에 둔 謙辭임을 감안할지라도, 스스로 시문에 힘을 경주한 인물로 자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학을 작은 재주 정도로 간주하는 詩者小技論 등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같은 시문학관은 그와 학문적으로 깊이 연계된 퇴계학파의 일반적인 문학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시문학이 문자 그대로 餘技의 수준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백 두보 유우석 등 당나라 시인들의 시를 즐겨 읽었고, 그들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 창작에 직접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삶의 다양한 체험들을 그 속에 진지하게 담아냄으로써 시를 생활의 일부로 실천하였다. 예컨대 그는 野菊(들국화)이란 시의 주석에서 “내가 한가한 가운데 두보의 시를 읽어보니, 그 가운데 籬邊野外多衆芳 採擷細瑣升中堂이란 구절이 있었다. 이것은 들국화류를 지칭한 것이었다. 내가 시냇가에 작은 집을 짓고 보니 들국화가 막 피었는데 색깔과 향기가 또한 매우 사랑스러웠다. 인하여 한 절구시를 지어서 조롱에 변명한다”<sup>21)</sup>라고 하여 자신의 野菊이란 시가 두보의 시를 염두에 두고 지은 것임을 명시하고, 실재 시 속에 두보의 詩意에 연계된 “堪恨少陵無老眼 野姿真是得天香”<sup>22)</sup>이란 표현을 구사하였다.

戲題란 시의 주석에서는 “이백의 시에 梨花白雪香이라 했고 두보의 시에 風吹細細香이 했는데, 배(梨)는 본래 향기가 없고 대나무(竹)도 또한 향기가 없다.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시들이 진실에 어긋났다고 기롱하였다. 이에 한 절구시를 지어 조롱에 변명한다”<sup>23)</sup>라고 하여 자신의 戲題란 작품이 이백과 두보의 시에 대한 후대인들의 비판에 촉발되어 지은 것임을 명시하고, 역시 시 속에서 이백과 두보의 詩意에 연계된 “江漢文章詩史筆 莫論梨雪竹風香”이란 표현을 구사하였다<sup>24)</sup>. 또 賞花2首란 시의 주석에서도 “마침 劉夢得의 시를 보니 今日花前飲 甘心醉數盃 但愁花有語 不爲老夫開라는 구절이 있어서 인하여 느낀 바 있어서 짓는다”<sup>25)</sup>라고 하여 이 시가 유우석의 시에 느낀 바 있어서 지은 것임을 명시하였고, 역시 작품 속에서 각각 “不是風流對酒杯”<sup>26)</sup> “休信劉公解道來”<sup>27)</sup> 등 유우석 시와 연계된

21) 芝山先生集, 卷1, 24쪽, 野菊  
“老夫閑中讀杜甫詩 有籬邊野外多衆芳採擷細瑣升中堂之句 此指野菊之類 余構小屋於溪邊 見野菊方開 正色天香 亦甚可愛 因作一絕 以解嘲云云”

22) 이 시의 제1수에 秋容元不管重陽 自好何曾願擷芳 堪恨少陵無老眼 野姿真是得天香이라 하였다.

23) 芝山先生集, 卷1, 30쪽 戲題  
“李白詩梨花白雪香 杜甫詩風吹細細香 梨本無香 竹亦無香 故後人譏其失實 故作一絕解嘲云”

24) 이 작품의 전문은 且聞敲玉枕邊長 未信瑤姬淡掃粧 江漢文章詩史筆 莫論梨雪竹風香이다.

25) 芝山先生集, 卷1, 32쪽, 賞花二首  
“適見劉夢得詩 今日花前飲 甘心醉數盃 但愁花有語 不爲老夫開之句 因感而賦之”

26) 이것은 賞花二首 중 제1수로 전문은 無數春粧向我擡 晚成奇癖好栽培 須知杖履閑吟處 不是風流對酒杯로 되어 있다.

27) 이것은 賞花二首 중 제2수로 전문은 廿四風光夢欲回 紛紛紅紫苦相催 纔開已老翻應羨 休信劉公解道來로 되어 있다

표현을 구사하였다.

기타 芍藥이란 시의 주석에서는 이 시 제1행 “蘇臺方宴事蒼黃”이란 시구의 蘇臺란 표현이 이백의 시에서 姑蘇臺를 蘇臺라고 했던 표현에 근거했음을 밝혔고<sup>28)</sup>, 贈李秀才란 시의 주석에서는 이 시가 納清堂의 唐律1首와 樂天堂의 絕句2首에 화답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sup>29)</sup>, 이런 예들은 모두 그가 이백 두보 유우석을 비롯한 당나라 시인들의 시를 즐겨 읽었고, 그들 시의 표현과 詩意를 자신의 작품 창작에 즐겨 활용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雪竹<sup>30)</sup>이란 작품의 뒷부분에서 “小榻尋詩看到夕”이라 하여 그 자신이 무려한 가운데 시를 즐겨 지었음을 암시하였고, 尹聃에게 7언절구 2수를 지어 보내면서 “老境에 遮眼함에 또한 일조가 될 것이니, 바라건데 책상에 기대어 지내는 여가에 한번 종이에 (시를) 적어 보기를 아끼지 말라”<sup>31)</sup> 라고 하여 상대방에게 시 짓기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스스로도 물론 남의 시에 화답하는 和次韻詩, 벗들과 逢別 酬答한 시, 죽음을 애도하 挽詩, 花卉 草木 山水 樓亭을 읊은 시 등 다양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시 짓기를 생활의 일부로 실천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지산의 시문학론은 道를 詩 보다 우선하는 도학파 문학론의 큰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찮은 小技나 餘技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는 극단적 경지로 흘러갔던 것은 분명히 아닌 듯하다. 그는 이백 두보 유우석 등 당나라 시인들의 작품을 애독하였고, 여기에서 얻은 시적 역량을 詩作活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휘함으로써, 그것을 삶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실천하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sup>32)</sup>.

### 3. 詩世界와 그 特徵

#### 1) 總括的 狀況

현존 지산선생문집 권1에는 각종 시 212題 247首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 방식

28) 芝山先生集, 卷1, 32쪽, 芍藥 “李白詩 姑蘇臺作蘇臺”

29) 芝山先生集, 卷1, 48쪽, 贈李秀才유吉  
“頃日吾君 以納清堂唐律一首 樂天堂絕句二首 書示求和 老拙再三以不文辭而不獲——”

30) 芝山先生集, 卷1, 45쪽, 雪竹

31) 芝山先生集, 卷1, 29쪽, 贈尹眉叟二首  
“老境遮眼 亦是一助 幸憑几之頃 不惜塞紙一度”

32) 조지산이 시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음은 芝山先生文集 권5 圃隱先生詩集重刊跋에 수록된 “鷗鷺蒸民之作 夫子嘗稱之 以爲知道 而孟子曰 誦其詩 不知其人 可乎 然則詩之教 其可少哉”라고 한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리적 근거가 여전히 도학파류의 詩敎說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은 형식에 따라 5종으로 분류하여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고시 등의 순서로 되어 있고, 수록된 작품의 제재와 내용은 卽事-偶吟類, 逢別-寄贈-酬答類, 花卉-草木-禽獸類, 山水-樓亭類, 感時節類, 和次韻詩類 挽詩類 懷古-詠史類, 讀後感類 등 작품 총량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우선 전체적 상황을 살펴 보기 위해 이들을 개략적으로 분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고시	계
卽事-偶吟 -偶成類	偶成 등 4題 5首	江東偶題 등 9題 9首	偶題 등 16題 19首	月夜戲作 등 4題 5首	@	33題38首
花卉-草木 -禽獸類	栽花 등 2題 2首	@	栽松 등 24題 30首	@	雪竹 등 1題 1首	27題33首
山水- 樓亭類	@	到鳥嶺 등 5題 6首	秋山 등 10題 12首	題金叔厚江亭 등 8題 9首	望鄉臺詩 7언26행	24題28首
感時節類	@	初秋夜坐 등 4題 4首	夜雪 등 11題 13首	@	對菊花有感 등 2題 2首	17題19首
逢別-寄贈 -酬答類	逢友 등 1題1首	路中寄故人- 등 7題 7首	別故人 등 25題 30首	送別 등 11題 11首	贈惟政 등 2題 2首	46題51首
和次韻類	@	次金叔厚韻 등 6題 6首	次尹邑宰- 등 14題 21首	奉酬金邑宰墻 韻 등 5題6首	無相忘辭- (5언16구)	26題34首
挽詩類	@	挽崔上舍- 등 12題 12首	@	挽金江東棊 등 4題 6首	@	16題18首
其他	亂後始寓陶 村등2題2首	乞暇來鄉 등 1題 1首	讀晉史 등 17題 20首	討賊書懷 등 1題 1首	送四皓還山 등 2題 2首	23題26首
計	9題 10首	44題 45首	117題 145首	33題 38首	9題 9首	212/247

위의 표를 보면 우선 그가 지은 시가 절구 율시 등 전형적인 근체시에 편중되어 있고, 고시는 전체 247수 중 9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回文詩나 禽言體 玉連環體 등 잡체시 양식은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근체시 가운데서도 칠언절구가 전체 작품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조호익은 양식적으로 보편화된 전형적인 근체시를 작품 창작의 주된 방식으로 활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칠언절구를 가장 친근한 양식으로 즐겨 애용하였음을 우선 확인할 수 있겠다.

제재와 내용 상 주목할만한 점은 실재 생활하는 가운데 주고 받은 贈答詩 和次韻詩 挽詩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작품 247수 중 벗이나 형제들과의 逢別-寄贈-酬答詩類가 51수, 和次韻詩類가 34수, 挽詩類가 18수 도합 102수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즉물적 감회와 성찰의 정황을

옴은 卽事-偶吟-偶成類 38수, 花卉 草木 禽獸 등을 주요 제재로 수용한 詠物詩類가 33수, 山水와 樓亭 등을 옴은 시가 28수로 현저하게 부각되는데, 이것 역시 대부분의 삶을 관리로서 보다는 山水와 花卉를 벗하며 생활한 다소 불우한 학자적 삶과 깊이 연계된 것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재와 내용에 있어서 조지산의 시는 학자적 삶의 실천과정으로 용해된 온전한 생활시라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

## 2) 離別의 悔恨과 客愁

조지산은 65세의 일생 중 전반기 약 30년은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31세 때 崔滉의 誣告로 全家徙邊의 조치를 당함으로써<sup>33)</sup> 오래 동안 고향을 떠나 살 수 밖에 없었다. 32세(선조9) 3월 고향 창원을 떠나 평안도 江東으로 강제 이주당한 뒤, 48세(선조25년) 때까지 만16년을 평안도 지역에서 객지 생활을 하였는데, 이 사건은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은 중대한 사건이면서, 그에게 이별의 회한과 객수를 통렬하게 절감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유성룡의 건의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란의 와중에 평안도 中和 祥原에서부터 남으로 경상도 梁山에 이르기까지 곳곳을 다니면서 의병활동에 종사하였다. 50세(선조27) 때 잠시 영천에 정착하였지만, 이듬해 다시 평안도 강동으로 돌아갔고, 이후 55세(선조32) 9월 경상도 永川 陶村에 자리를 잡기까지 관직과 형편에 따라 평안도 成川(52세, 선조29) 安州(54세, 선조31) 定州(55세, 선조32) 등을 전전하였다. 그러니까 全家徙邊의 조치를 당한 32세 3월부터 55세 9월까지 만 23년 6개월을 경상도와 평안도를 오가는 불안정한 객지생활을 지속하였으며, 만년에 정착한 永川 陶村 역시 고향이 아님을 감안한다면, 30대 이후의 그의 삶은 모두 객지 생활로 일관된 셈이다. 이 때문에 그의 시 중에는 이별의 悔恨과 客愁를 옴은 작품이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憫余生之不淑兮	가엾다 내 인생 착하지 못함이며.
遭時命之蹇阨	시절과 운명의 재앙을 만났구나
無纖毫之可咎兮	터럭 만큼도 허물될 일 없었건만,
有丘山之譴責	언덕과 산 처럼 큰 견책 받았네

33) 지산은 27세(선조4년) 11월에 아버지 상을 당하였고, 이듬해 12월 다시 어머니 상을 당하였다. 그래서 31세(선조8년) 2월에 경상도 都事 崔滉이 군사 징발의 檢督의 일을 맡겼으나, 喪制를 다 마치지 못하고 또 병이 들어서 부응하지 못하였고, 晝暈이 다시 장정 50명을 징발해 들어라고 하였으나 그 수를 다 채우지 못하였다. 그러자 晝暈이 조정에 그의 全家徙邊을 주청하였다.



告先塋兮泣且辭	선영에 고하고 울며 또 인사하니
心搖搖兮如旌	불안한 마음이 깃발같이 흔들리네
親朋挽余以掩涕	친척과 벗들은 잡고 눈물 닦아주고
鄉鄰告余以勿急	이웃들은 나에게 서둘지 말라 하네
出里門以言邁兮	마을 문을 나서서 먼 길을 떠남에
白日忽其變色	밝은 해가 갑자기 그 색이 변하네
馬踟蹰而不前兮	말은 머뭇거리며 나아가지를 앓고
魂游洸而若喪	혼이 빠져 달아나 상실된 듯하네 <sup>34)</sup>

이것은 그가 처음 강동에 이주한 32세 때 지은 西征賦란 작품의 일부이다. 西征賦는 전체가 약 1939자로 구성된 장편의 辭賦작품인데, 글 전반에 걸쳐 자신이 서북쪽 변방 강동 땅으로 강제 이주당하게 된 억울한 사정, 강동에 도착하기까지의 쓰라린 마음과 고난에 찬 도정, 자신을 따라오던 형제 친구들과의 중간중간의 서글픈 이별 장면, 억울한 처지를 해쳐나갈 자신의 마음과 각오 등을 楚辭의 형식을 통해 절절하게 기술한 것이다. 인용한 글은 이 중 제일 앞부분으로, 고향을 떠나는 억울하고 불안정한 심사와 이웃 친지들과의 애뜻한 이별의恨을 표현한 것인데, 눈물을 닦아 주며 서둘지 말라 당부하는 친지의 모습이나 해의 색이 변하고 말조차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장면을 통하여 작자의 언어리진 悔恨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 江東偶題

譴深千里遠	깊은 견책 받고 천리 먼 곳으로 와
關外十年身	關西 땅에서 10년을 보내는 신세
世路經逾險	세상살이 길은 지낼수록 험난한데
人情久益新	인정은 오래수록 더욱 새롭구나
途窮行復曠	길이 막혀서 가다가 또 넘어지고
性拙動多嗔	천성이 졸렬하여 걸핏하면 욱도 많네
賴有書中友	책 속에 있는 벗들에게 의지하노니
閑來更自親	한가함에 더욱 저절로 가까이 하네 <sup>35)</sup>

이 시는 “江東에서 우연히 짓는다”(江東偶題)라고 한 제목과 “깊은 견책 받고 천리 먼곳으로 와, 關西 땅에서 10년을 보내는 신세”라고 한 首聯의 표현을 볼 때 강동에 온 10여년 만에 지은 작품으로 생각된다. 이 시는 우선 頷聯과 頸聯의 對偶를 활용해서 험난하고 탈 많은 세상살이 길과 그런 세상에 쉽게 타협하거나 편

34) 芝山先生集, 卷1, 1쪽, 西征賦

35) 芝山先生集, 卷1, 8쪽, 江東偶題

승하지 못하는 작자 자신의 與世相違之感을 긴밀하게 대비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首聯과 尾聯의 표현 즉 천리 먼 객지로 쫓겨 와 세상을 등지고 책을 벗하며 지낸다고 한 표현에 앞 뒤로 연계시킴으로써, 결국 세상에 영합하지 못하고 억울한 견책 생활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회한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작품 속에는 작자의 이런 강한 悔恨과 관련하여 譴 關外 險 途窮 磧 嘖 등 평탄지 못한 삶을 암시하는 시어들이 다수 동원되었고, 이 때문에 전체적 분위기가 차분하면서도 어둡고 무겁게 느껴진다.

乞假來鄉復歸江東

來尋舊遊地	옛날에 놀던 땅을 찾아 와 보니
生死十年遲	안부가 십년이나 지체되었구나
白首過逢晚	백발이 되어서야 뒤늦게 만나
靑山涕淚垂	청산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連牀殘燭夜	상을 이어 쇠잔한 촛불 권 밤에
掩袖繼行詩	소매 끌며 이별 시를 적어서 주네
此別歸難料	이번에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니
且休問後期	뒷날 만날 기약은 묻지를 마오 <sup>36)</sup>

이 시는 제목 밑에 戊子春이라는 창작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서 1588년(선조21년) 44세 되던 해 봄에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보 44세 조항에도 “봄에 말미를 얻어 남으로 돌아와 성묘를 하였다. 도중에 서울을 지날 때 崔澗이 찾아 와서 울며 사과하였다”<sup>37)</sup>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강동에 유배된 12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여 지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작품 제2행의 “안부가 십년이나 지체되었구나” 하는 것도 이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는 길을 가다가 만난다는 의미의 過逢이란 표현을 用事<sup>38)</sup>한 이 외에 표현상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 잠깐 고향을 찾아 왔다가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이 먼 변방으로 떠나야 하는, 당연히 향유해야 할 만남의 순간성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부당한 이별의 무한성이 시 전편에 걸쳐 대립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작자가 겪고 있는 이별의 悔恨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런 정서가 끝 연에 효과적으로 함축되었다.

36) 芝山先生集, 卷1, 8쪽, 乞假來鄉復歸江東

37) 연보 44세 조항에 “春受由南還 省先墓 崔澗來見”이라 하였고, 그 주석에 “先生受由南還 路過京城 崔澗就邸 握手而泣曰 聞君自居江東 無一言怨我 眞知命之君子 我恐以陷君之罪 酷受天殃”이라 하여 그 사과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38) 過逢이란 길을 가다가 서로 만난다(行於途而相逢也)는 뜻으로 漢書 五行志에 나오는 “道中相過逢 多至千數”란 표현을 용사한 것이다.

詠溪

客居休築傍溪流	나그네로 살거든 시냇가에 집을 짓지 말게
物本無情水最尤	사물은 본래 무정하고 물은 더욱 심하다네
幾度故鄉驚破夢	몇 번이나 고향 가는 내 꿈을 깨웠던고
寒聲不肯暫時休	차가운 소리를 잠시도 그치려 하지 않네 <sup>39)</sup>

이 시는 작품에 묘사된 내용을 살펴 볼 때 작자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객지의 어떤 시냇가에 집을 짓고 살던 시절에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가 거쳐했던 곳이 江東縣 高芝山(33세) 成川 玄明山(52세) 安州 三阡村(54세) 永川 陶村(55세) 永川 芝山村(59세) 등 대단히 다양하여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지은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이 시는 “시냇물을 읊는다”(詠溪) 라고 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집 옆을 흐르는 시냇물을 시의 핵심적인 제재로 포착하였다. 그리고 시냇물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그침 없는 물소리를 중요하게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객관적 자연현상이 아닌, 고향 가는 꿈을 깨우는 無情한 주관적 존재로 자기화하였다. 그래서 아랑곳 않고 꿈을 깨우는 무정한 물소리와 꿈을 통해서라도 고향과의 단절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아의 의지를 대립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작자의 客愁를 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 처럼 조지산은 30대 때의 全家徙邊 조치와 그 이후 끝까지 지속된 고향을 떠난 객지의 불안정한 생활을 겪으면서 이별의 한과 객수를 읊은 작품을 대단히 많이 지었다. 처음 강동으로 떠나 올 때 武溪驛에서 형제들과 이별하던 심정을 읊은 到武溪驛別諸兄弟, 자신이 고향을 방문할 때나 강동으로 자신을 찾아 온 사람들과의 이별의 한을 읊은 路中寄故人尹眉叟聘 驢別許仲幹 到扶桑寄弟讓叔 閱波亭送別從子以復 醉後次韓秀才湏韻 別故人, 기타 강동 생활의 회한과 객수 및 각종 고향 회귀의 정한을 읊은 寄金君舉鉉 望鄉臺詩 安州卽事(10쪽)<sup>40)</sup> 初秋獨坐 到鳥嶺 次朴樞韻 乙未冬在安州作 寄金君舉鉉二首 偶吟(22) 端午書懷贈朴秀才求和 賞花二首 등이 모두 이런 작품들이다. 이런 작품들은 시적 기교가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 전반에 내재한 자아의 소망과 외부적 상황 사이의 극복될 수 없는 與世相違之感이 인상 깊게 부각되었으며, 이런 情調에 부합하는 客 客子 羈 羈旅 送別 歸喪 獨無情 傷涕淚 雙涕 揮淚 泣 消魂 憫不淑 陘 咎 譴責 險 窮 蹟 嗔 關外 關塞 絕塞 등의 시어를 대단히 자주 사용하여 특징적이다.

39) 芝山先生集, 卷1, 23쪽, 詠溪

40) 이 작품에 쪽수를 명시한 것은 동일한 제목의 작품이 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하 쪽수를 명시한 것은 모두 이런 의미가 있다.

## 3) 脫俗的 自然閑情

지산은 徙邊의 조치에서 풀려 난 48세(선조25, 1592) 5월부터 영천 陶村에 정착한 55세(선조32, 1599) 9월까지 약 7년간 義禁府都事(48세5월) 掌隸院評事 刑曹正郎(48세 11월) 護軍(48세12월) 大邱府使(49세 6월) 星州牧使(50세 3월) 安州牧使(51세 5월) 成川府使(52세 8월) 定州牧使(55세 3월)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 7년은 바로 임진왜란 기간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그러나 당시의 혼란한 사정 때문에 그의 벼슬살이는 순탄하지 못하였다. 관직에 진출한 1년 뒤인 49세 6월에 대구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체되었고<sup>41)</sup>, 이듬해 3월 성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7개월만에 그만두었다<sup>42)</sup>. 51세 5월에 안주목사에 임명되었지만 역시 1년만에 그만두었고, 그해 8월에 성천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10개월 뒤에 그만두었다. 55세 3월 定州牧使에 임명되었을 때도 3개월 뒤에 교체되었고, 이후에는 校正廳堂上(58세 3월) 善山府使(60세) 南原府使(62세)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실재 관직에 있었던 기간은 임란기간 7년, 그 중에서도 약 3년 8개월 정도가 전부였다.

이 처럼 조지산의 인생은 임란 기간 중 3년 8개월 정도의 벼슬살이를 제외하면 재야의 생활로 일관되어 있다. 32세 때부터 48세 때까지는 평안도 강동에서 생활하였는데, 이때 그는 高芝山 아래 鳴玉臺 遂志齋 風雷堂 등을 짓고 자연 속에 은거하여 지냈고, 여기에 정착할 때의 심정을 幽居賦란 작품에 잘 묘사해 놓았다. 48세 때부터 55세 때까지는 전란의 와중에 평안도와 경상도를 넘나드는 생활을 하였지만, 벼슬을 그만두었을 때는 언제나 成川의 玄明山 安州의 三阡村 등 산수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였다<sup>43)</sup>. 55세 이후부터 작고할 때까지 약 10년간 경상도 영천에 정착하였는데, 처음 陶村에 자리를 잡았다가 더욱 깊고 그윽한 자연환경을 찾아 다시 五芝山 아래 芝山村으로 옮겨 살았다<sup>44)</sup>. 그리고 이곳에 拙修堂 翫餘齋 忘懷亭 知魚臺를 짓고, 못을 만들고 물을 가두어 桃花潭이라 하였으며, 달빛을 타고 배를 띄워 陶山十二曲을 부르며 지냈다<sup>45)</sup>. 조지산의 작품 가운데 탈속적 자연한정을 노래한 작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

41) 연보에는 즉시 부임하지 않는다고 都元帥 權慄이 교체할 것을 아뢰었기 때문(以不即赴任 啓遞)이라고 그 이유를 기록해 두었다.

42) 연보에는 역시 권율의 미움을 산 결과(爲元帥所忤)로 기록하였다.

43) 조지산이 52세 때 成川 玄明山 아래 거주하던 시절 “有鳳翔峯錦水之勝 於是逍遙其間” 이라고 한 연보의 기록은 이런 곳들이 모두 산수자연을 즐길만한 곳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44) 芝山은 55세에 永川 陶村에 정착하였다가 59세 2월에 다시 五芝山 아래 芝山村으로 옮겼는데, 神道碑銘에 그 이유를 “蓋以厭官而取幽邃也”라고 밝혀 놓았다.

45) 연보 59세 조항

“芝山村 在治南三十里 五芝山下 有林泉之勝 既卜築 扁其堂曰拙修 齋曰翫餘 亭曰忘懷 築池 鍾水曰桃花潭 種桃潭上 隱映水面 潭上有臺曰知魚 乘月汎舟 使歌陶山十二曲”

생의 대부분을 재야 생활로 일관한 이런 삶과 깊이 연계된 것이다.

白鷗

煙沙雲水渺難窮	煙沙 雲水는 아득히 다하기 어려운데
却愛山林寂寞中	도리어 적막한 산 속을 사랑하는구나
無限江湖魚鳥裏	한 없는 강호의 물고기와 새들 속에서
獨渠心事與吾同	홀로 너의 心事가 나와 같나 보구나 <sup>46)</sup>

이 시는 제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흰 갈매기를 읊은 작품이다. 갈매기는 원래 안개 낀 백사장(煙沙)과 구름이 날아가는 바다 위(雲水)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지내는 새이다. 그런데 작품 속에 묘사된 갈매기는 바다를 떠나 도리어 적막한 산중의 조그마한 못을 찾아 와 지내고 있는 갈매기이다. 이 시는 우선 起句와 承句에서 넓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갈매기와 작자의 시선에 포착된 산중의 갈매기를 정확하게 대비하고, 그 중 후자의 존재와 그 특이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轉句와 結句에서 “강호의 무한히 많은 물고기와 새들 가운데 산중을 찾아 온 갈매기의 心事가 유독 자신과 같다” 라고 하여 산중 갈매기와 자신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그기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세속에서 무리를 지어 뒤엎혀 살아가는 존재들과 다른 변별성이 양자를 연계시키는 동질성의 본질이다. 이 작품은 이 처럼 산중을 찾아 온 갈매기의 존재를 매개로 하여 세속을 벗어난 자신의 고적한 정서를 읊고 있으며, 제목 하단의 주석을 통해 이것이 芝山에 터를 잡고 생활하던 자신의 실재 체험에 기초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47)</sup>.

移居芝山築堤防溪種桃其上因戲作一絕

六百年中蹤跡奇	육백년 세월에 종적이 기이하더니
流傳只在兩三枝	다만 두 세 가지에 흘러 전하였네
慙慙莫怪防溪水	시냇물 막는다고 괴상히 여기지 말게
滿洞飛花未可知	골짜기 가득 꽃 날아도 알 수 없나니 <sup>48)</sup>

이 시는 “芝山으로 거처를 옮겨 제방을 쌓아 시냇물을 막고 그 가에 복숭아를 심었다” 라고 한 제목을 통하여 芝山에 정착한 59세 때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보 59세 조항에도 “2월달에 芝山村으로 거처를 옮겼다.----연못을 쌓아

46) 芝山先生集, 卷1, 26쪽, 白鷗二首 중 제2수

47) 이 작품의 제목 하단에 “亭前有池數頃 每年春秋 有鷗獨來 游泳終日 或至十餘日不去 渠本江湖之物 出沒煙波浩渺之中 今於窮山深谷 斗水尺波 固不足以容浩蕩之性 不知何意何自而來 感而賦之” 라고 하여 이 작품이 작자의 실재적 체험에 기초했음을 명시하였다.

48) 芝山先生集, 卷1, 29쪽, 移居芝山築堤防溪種桃其上因戲作一絕

물을 가두고 桃花潭이라 하였고, 桃花潭 가에 복숭아를 심으니 은은하게 수면에 비쳤다<sup>49)</sup>라고 한 기록이 있어서 이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제재는 복숭아이다. 그런데 이 복숭아는 예사 복숭아가 아니다. 600년이나 종적이 기이하던 桃花源記에 나오는 복숭아이다. 桃花源記에는 “쫓나라 때의 武陵 땅 어부가 시내를 거슬러 올라 가다가 복숭아 숲(桃花林)을 만났고, 그 안에서 秦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樂園을 이루며 살아온 秦나라의 유민들을 만났으며, 그들과 대화를 해 보니 진나라 이후의 漢 魏 쫓의 왕조를 알지 못하였다”는 요지의 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의 600년이란 표현은 秦나라 때부터 武陵 땅 어부에 의해 발견된 쫓나라 때까지 종적이 묘연했던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시에 등장한 桃花가 바로 武陵桃源의 桃花임을 증명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작자는 承句에서 바로 이 무릉도원의 도화가 芝山村에 流傳되었다고 하여 자신이 터를 잡은 芝山村을 무릉 도원과 동일시 하였다. 轉句와 結句의 시적 착상도 대단히 흥미롭다. 원래 시냇물을 막은 것은 못을 만들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냇물을 따라 복숭아꽃이 흘러가면 자신의 존재가 세속에 알려질까 걱정했기 때문이란 기발한 시적 착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착상에 근거하여 結句에서 “골짜기 가득 복숭아 꽃이 날아도 세상사람들이 알 수 없으리”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 처럼 이 시는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속을 벗어난 芝山村의 삶을 秦나라 난리를 피해 지낸 무릉도원의 삶에 견주어 표현한 것인데, 그런 삶의 흥취를 자연스럽게 그려가는 담담한 필치와 그 시적 착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秋山

天仙飲罷築糟丘	신선이 술 마셔서 지게미 언덕 쌓이더니
散作清霜昨夜秋	맑은 이슬로 흩어내어 밤새 가을 들었네
遍遣青山嘯嘯盡	靑山에 두로 보내어 다 먹고 마시게 해서
一時渾帶醉痕浮	일시에 혼연히 취한 흔적을 띄었구나 <sup>50)</sup>

조지산의 작품 가운데는 가을 산이나 자연경관 국화 등을 읊은 작품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가을날 자연에 흠뻑 침잠한 마음을 표현한 溪堂初秋를 비롯하여 秋山(16쪽) 秋山二首 野菊 菊三首 등이 모두 그런 것인데, 위의 작품도 그 중의 한 수인 秋山二首의 두번째 작품이다. 이 시에서 돋보이는 점은 가을 산을 표현하는 작자의 착상 그 자체이다. 작자는 起句와 承句에서 가을에 내린 맑은 서리가 하늘

49) 연보 59세 조항에 “二月移卜于芝山村”이라 하였고, 그 주석에 “築池鍾水曰桃花潭 種桃潭上 隱映水面”이라고 한 기록이 있다.

50) 芝山先生集, 卷1, 30쪽, 秋山二首 중 제2수

나라의 신선이 마음껏 술을 마셨다가 그 술을 다시 뿜어 낸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轉句와 結句에서는 가을 날 단풍이 들어 울긋불긋한 산의 모습을 靑山이 그 서리(신선이 뿜어낸 술)을 한껏 마셔서 붉그레 취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신선은 물론 靑山을 붉은 가을 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 즉 자연의 섭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일 것이다. 이 시에서 작자는 가을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기 위해 상투적 미사려구를 번잡하게 나열하지 않았다. 다만 天仙이 뿜어 낸 술과 그 술을 마신 존재로 기발하게 전환시켜 놓음으로써 그 산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그 이면에 작용하는 섭리 및 여기에 덩달아 취해버린 듯한 자신의 흥취를 간결하면서도 의미있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조지산의 시 중에는 이와같이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탈속적 지향, 산수간에 자적하는 물외한인의 한정, 벗처럼 가까이 한 山水와 花卉의 아름다움 등을 노래한 작품이 양적으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낱낱이 검토하지는 못했으나 山中戲題 溪堂初秋 述懷 題金汝礪翼商屯谷茅齋二首 偶題 (16) 秋山(16) 寄張生瑒 遊妙香山歸路口占 靈鷲峯 題陶村溪堂 野菊 菊三首 등이 모두 이런 류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런 작품들은 대부분 그 안에 때묻지 않은 정결한 정서와 아름다움을 농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지산이 추구한 정신세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간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작품들은 산중을 찾아 온 갈매기의 존재(白鷗), 제방 축조에 대한 개성적 의미 부여(移居芝山-), 가을 산을 묘사하는 기발한 발상(秋山) 등 작품을 구상해 가는 수법과 시적 착상에 있어서도 가장 성공한 작품 계열로 생각된다.

#### 4) 學問的 沈潛 其他

지산의 시 가운데 질-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에서 검토한 離別의 悔恨과 客愁, 脫俗的 自然閑情 등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삶의 실천 과정에 용해된 각양각색의 정서를 작품화 한 예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학문적 침잠의 경지를 담은 작품과 전란 등에 연계된 작품들이다. 조지산의 삶에 있어서 학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쉼을 요하지 않는다. 전체 저술 대부분이 경학 예학일 만큼 그에게서 학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학문적 침잠의 경지를 읊은 작품은 이런 학자적 삶의 자연스러운 반영이다.

#### 偶吟

一理元來自渾全	한 이치는 원래 스스로 혼전하거늘
身外何曾更有天	몸 밖에 어찌 다시 天理가 있을까
六十餘年方會得	육십여년에야 바야흐로 터득하니

滿前飛躍政悠然 앞에 가득 飛躍함이 참 유연하구나<sup>51)</sup>

起句에 나오는 一理와 承句에 나오는 天은 천지만물의 化育과 流行에 작용하는 所以然의 보이지 않는 이치를 말한다. 結句에 나오는 飛躍은 중용에 인용된 鳶飛戾天 魚躍于淵 즉 一理의 작용이 天地上下間에 드러난 현상계의 상징적 표현이다. 현상계의 이면에는 이성적 자각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一理의 작용이 있으며, 이 一理의 작용은 오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현상계를 통해 실천된다. 중용에는 오관으로 감지할 수 없는 이 一理의 은밀한 본체성을 주목하여 隱이라고 했으며, 천지만물 어디에나 실현되는 작용의 무한성을 주목하여 費라고 하였다<sup>52)</sup>. 작자는 60 평생의 오랜 학문적 침잠을 통해 자신과 연계된 이 一理의 본체성과 작용성을 깊이 체득하였으며, 그런 체득의 유장한 흥취를 偶題란 제목 그대로 자연스럽게 작품화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학문적 침잠과 득도의 경지를 읊은 작품으로는 讀易用徐花潭韻 讀中庸鳶魚章二首 用程明道韻寄金老 등이 있다. 그리고 책을 가까이 하며 사는 일상의 모습을 읊은 閑中偶題 夜雪 寒齋夜臥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학문의 방법을 제시한 贈別學者 贈齋中諸秀才二首, 학문과 현실의 괴리감을 성찰한 寄箕城金秀才 등도 모두 학문적 침잠과 연계된 작품들이다. 이런 작품이 양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며, 표현상으로도 성리학적 개념어와 용사를 일정하게 구사한 외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經傳과 禮書의 세부적 사항을 探討한 일반 저술과는 달리 그가 추구해 온 학문에 대한 포괄적 성취감과 깊은 이성적 성찰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하는 작품들이란 점에서 그 독자적 가치를 인정할만하다.

#### 安州卽事四首

川原暴骨爛戈鋌	시내 언덕엔 해골 창 썩어가는데
春物熙熙似昔年	봄날은 화평함이 옛날과 같구나
看取野花啼鳥處	들꽃 피고 새우는 곳 살펴 보자니
太平佳氣摠依然	태평한 아름다운 기운 다 여전하네 <sup>53)</sup>

이 시는 전란과 관련된 작품 중의 하나이다. 安州卽事란 제목을 통해 안주에 있을 때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조지산이 안주에 거주한 것은 51세 때와 54세 때이다. 51세 때는 안주목사에 임명되어 근무하였고, 1년만에 해임된 뒤에는

51) 芝山先生集, 卷1, 30쪽, 偶吟

52) 中庸 제12 鳶魚章의 주석에 “子思引此詩 以明化育流行 上下昭著 莫非此理之用 所謂費也 然其所以然者 則非見聞所及 所謂隱也”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리킨 것이다.

53) 芝山先生集, 卷1, 18쪽, 安州卽事四首 중 제1수



成川에 거주하였으며, 그러다가 다시 54세 때 安州 三阡村으로 옮겨 살았다. 이 중 어떤 시기에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3-6년 사이의 일로, 아직 왜란이 진행중인 시기였던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起句에서는 우선 언덕과 시내에 나뭇굴며 씩어가고 있는 해골과 창을 제시하여 전쟁의 참혹했던 광경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承句에서는 이런 전쟁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변함 없이 찾아 온 봄날의 화평한 모습을 묘사하여 양자를 대비하였다. 그리고 轉句와 結句에서는 들꽃 피고 새 우는 아름다운 봄날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전란을 잊고 태평을 회복하고 싶은 기대와 희망을 투영하였다.

조지산은 임진왜란 7년의 전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였고, 그 중의 상당 기간은 직접 왜적의 토벌에 참여하여 함경도 中和 祥原지역에서부터 경상도 梁山까지 출정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왜적을 소탕하고 싶은 소망을 읊은 病中偶吟, 왜적들의 만행을 고발한 見倭賊撞破佛像爲吟一絶, 전란 뒤의 황폐한 모습을 읊은 安州卽事(14쪽), 전란에 함께 참여했던 제자들을 전송하면서 지은 贈別金汝礪朴士華, 잔란에 분주하다가 도촌에 정착한 감회를 읊은 亂後始寓陶村 등 전란과 관련된 작품을 적지 않게 지었다. 그러나 이 작품들 역시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며, 장편 고시의 형식을 통해 전란의 참상이나 왜적의 만행을 격렬하게 비판 고발하는 그런 작품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위에 검토한 安州卽事四首 처럼 자신의 체험과 소망을 전형적인 근체시 양식을 통해 차분하고 절제있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 4. 마무리

본고는 지금까지 조지산의 학자적 삶에 있어서 시문학이 지닌 위상과 그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확인 가능한 조지산의 23권의 저술 중 문학작품으로 간주할만한 것은 詩賦1권 정도였으며, 따라서 시문학은 그가 추구한 세계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함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 연원이 처음부터 퇴계학맥에 뿌리를 두었고, 중요한 교유 인물 대부분이 퇴계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성취한 학문적 문학적 성취도 여기에 기인하는 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지산은 도학과 문학론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騷家風韻을 아는 시인으로 자처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학을 하찮은 小技로 간주하는 극단적 경지로까지 흘러갔던 것은 아니며, 이백 두보 유우석 등 당나라 시인들의 작품을 애독하고, 여기에서 얻은 시적 역량을 삶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실천함으로써, 賦 2편과 각종 시 212題 247首를 창작할 수 있었다. 시는 대부분 5언 7언의 절구

와 읍시 등 전형적인 근체시였고, 그 중 칠언절구가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으며, 실생활과 연계된 贈答詩 卽事偶吟類 山水 花卉 樓亭詩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삶 속에 용해된 온전한 생활시라는 점에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

조지산의 시 속에 구현된 정서적 세계는 이별의 회한과 객수, 탈속적 자연한정 등을 묘사한 것이 질-량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는 30대 초반에 억울한 全家徙邊의 조치를 당한 뒤 영천에 정착할 때까지 인생의 후반기 전부를 객지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입란 기간 중 약 3년 8개월 정도 벼슬에 나간 것을 제외하면 山水 속의 재야생활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이런 삶의 과정에서 체험한 다양한 이별의 회한과 객수, 세속을 벗어나 산수간에 자적하는 물외한인의 한정 등을 작품 속에 구현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작품 전반에 내재한 자아의 소망과 외부적 상황 사이의 극복될 수 없는 與世相違之感이 인상깊게 부각되었고, 후자의 경우 때문지 않은 정결한 정서적 아름다움과 발랄한 시적 착상이 특별히 주목되었다. 이 외에도 학문에 대한 포괄적 성취감을 읊은 작품을 통해 깊은 이성적 성찰의 면모를 엿볼 수 있고, 전란을 매개로 한 작품에서도 전쟁의 혼돈상 보다 그 극복의 소망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절제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작품이 그의 시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